

# “코로나19 전 세계 대유행 ‘팬데믹’ 시간문제”

###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 “가능성 높다” 진단 WHO, 2009년 신종플루 때 ‘팬데믹’ 선언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을 지속하면서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pandemic)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이 2일 내다봤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가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두 달 만에 전 세계 6대주 50여 개국으로 퍼져나가자 글로벌 위험 수준을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올렸지만 팬데믹을 선언

하지는 않았다.

팬데믹은 감염병이 한 나라를 넘어 전 세계로 전파돼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노출될 위험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용어로 WHO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플루) 대유행 때 팬데믹을 선언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부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도 “신종 감염병 확산 3단계(국내→국가 간→대륙 간 전파)로 봤을 때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북남미 대륙 등 여러 대륙에서 환자가 발생한 코로나19는 팬데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의견을 같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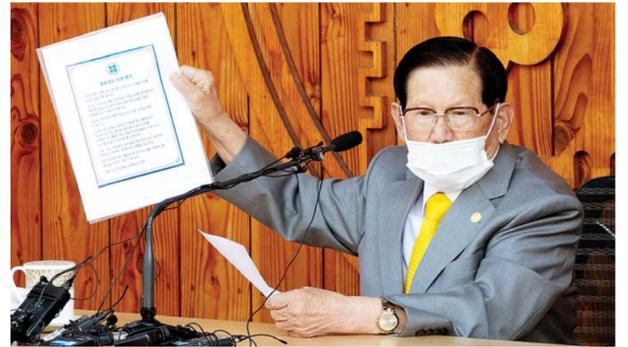
엄 교수는 “코로나19는 모든 대륙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점, 여러 국가의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확인되는 점 등 팬데믹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특히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완벽하게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

원장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도 “코로나19발 팬데믹은 당연히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 교수는 “팬데믹의 정의에 따르면 2개 대륙 이상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것인데, 이미 아시아와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다”면서 “나라마다 유행의 시작 시점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겠지만, 신종 플루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가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 교수는 “신종 플루 때와는 달리 치료제(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위생과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고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시 청평면 신천지 평화연수원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가운데 ‘총회장 특별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모습 드러낸 이만희 “하늘도 돌봐줄 것”

### 코로나19 논란 첫 공식 입장 경기도, 검체 채취 시도 실패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개최한 경기도 가평군 ‘평화의 궁전’ 일대는 2일 오후 물려든 취재진 등으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이날 예정 시각보다 15분 지연된 오후 3시 15분께 회색 정장에 노란색 타이를 착용하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낸 이 회장은 “정말 죄송하다. 뭐라고 사죄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코로나19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 개인의 일이기 전에 크나큰 재앙”이라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질 때가 아니고, 하늘도 돌봐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취재진 앞에서 두 번이나 큰절을 했는데, 이때 ‘박근혜 정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

에 포착됐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취재 열기로 장내가 혼잡해지자 이 총회장은 “조용합시다. 질서 없으면 난장판 돼서 안 된다”고 호통을 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경기도 측은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에 의해 저지됐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가평 HJ 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재진 앞에서는 가출한 신천지 신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팻말을 들고 항의성 시위를 벌였다.

‘사이비 신천지 가출된 자녀들 코로나 검사 받게하라’는 팻말을 든 한 여성은 “신천지 기숙사 골방에서 코로나에 걸려 신음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걱정된다”면서 “딸이 검사를 받도록 도와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내내 고향을 지르며 신천지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대구 가는 신입 간호장교들 2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입 장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1일자로 소위로 임관한 이들 간호장교 75명은 3일 임관식 후 대구지역에 투입된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통계 발표 바뀐다 0시 기준으로 오전 10시 공개

정부가 앞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통계를 매일 0시(자정) 기준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3000여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날짜별로 환자 변화 폭을 정확히 집계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은경 본부장이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정례 브리핑에서도 0시 기준 통계를 바탕으로 국내 발생 동향을 설명하고 오후 5시 발표는 오후 4시까지 취합된 통계를 인론에 공개하는 식으로 바꾼다. 연합뉴스

## 노인·만성질환자·임산부는 ‘입원치료’

###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배포 환자 상태 4가지로 나눠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적 심장·간·폐·심혈관 질환자, 암환자, 임신부, 장기이식 경험자 등은 현재 보이는 증상과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입원 치료를 받는다.

그 외 코로나19 확진자는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

준 등 5가지를 기준으로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분류돼 경증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로, 그 외 환자는 입원 병상을 배정 받는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 배정 기준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을 발표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정하고, 고위험군은 일괄 중증환자로 분류해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원에서 치료하기로 했

다. 노인과 만성질환자가 급격한 증상 악화로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고위험군은 빠르게 입원 시켜 중상을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고위험군은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 심장·간·폐·심혈관 질환자,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 혈액암 환자, 당뇨 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다. 또 고도 비만자와 임신부, 투석 환자, 이식 환자, 산소치료 필요 환자도 고위험군에 속한다.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때는 맥박과 수축기 혈압, 호흡수, 체온, 의식

수준을 고려한다. 각 항목에 대해 0~3점을 매기고, 합산한 점수가 4점 이하면 경증, 5~6점은 중등도, 7점 이상은 중증·최중증으로 판단한다.

경증은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서 증상 모니터링 받고, 그 밖의 환자는 입원 치료가 원칙이다.

환자의 혈압이나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현장 의료진이 의식과 나이, 기저질환, 흡연 여부, 체온 등을 판단해 ‘무증상’, ‘경증’, ‘중증’, ‘위중’으로 분류한다. 무증상과 경증은 시설에 격리하고, 중증은 입원 치료한다. 연합뉴스

## 2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4335명·사망 26명

### 확진 599명·사망자 4명 늘어 2일 0시 이후 확진 123명 추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오후 4시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33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4시부터 하루 동안 증가한 확진자는 총 599명이다. 이날 0시와 비교하면 123명 늘어났다.

이날 0시 기준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대구 3081명, 경북 624명, 경기

92명, 서울 91명, 부산 88명, 충남 78명, 경남 64명, 대전 14명, 울산 20명, 강원 19명, 충북 11명, 광주 9명, 인천 7명, 전북 6명, 전남 5명, 제주 2명, 세종 1명 순이다.

이날 0시 이후 추가된 확진자 123명의 지역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다.

사망자는 총 26명이다. 오후 4시 기준 공식 집계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자체 등에서 사망자 4명이 추가 확인됐다.

추가 사망자 4명은 모두 대구에서 나왔다. 연합뉴스



## 태양광 발전

###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